

인터텍스트를 활용한 읽기 과정 고찰

김도남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이 논문은 제61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16.4.16.)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I. 서언
- II. 텍스트의 기호 작용 구조
- III. 인터텍스트를 활용한 표상과 해석
- IV. 결론

I. 서언

텍스트는 기호로 이루어져 있다. 이 텍스트의 기호에 독자가 관여하면서 기호 작용이 일어난다. 기호 작용은 텍스트의 기표를 기준으로 텍스트 안에서의 작용과 텍스트 밖에서의 작용으로 나누어진다.¹⁾ 텍스트 안에서는 기의를 중심으로 독자의 표상 작용이 이루어지고, 텍스트 밖에서는 표상한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의미 해석 작용이 이루어진다. 독자의 표상과 해석 활동은 텍스트의 기표를 경계로 하여 구분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텍스트의 기표를 경계로 독자의 인지 활동은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 내용을 표상하고, 밖으로 나와 표상 내용에 대한 의미를 해석한다. 기표를 경계로 한다는 것은 기

1) 스콜즈(scholes, 1985/1995: 32)는 읽기의 세 양상을 읽기, 해석, 비평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각각은 세 양상을 빚어내는 텍스트의 활동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읽어 나갈 때 우리는 텍스트 내부에서 텍스트(text within text)를 생산하며, 해석할 때에는 텍스트 위에서 텍스트(text upon text)를 만들며, 비평할 때는 텍스트에 대항하여 텍스트(text against text)를 생산한다'. 이 논의에서는 표상과 해석에 관심이 있기에 텍스트에 대항하는 텍스트 생성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표를 텍스트와 독자가 공유하면서 표상 활동과 해석 활동이 나누어짐을 함의한다.

독자가 텍스트의 기표의 경계를 들어가고 나올 때는 특정 기제를 활용해야 한다. 독자가 텍스트를 드나들며 사용하는 기제는 인터텍스트(intertext)이다.²⁾ 인터텍스트는 텍스트가 상호텍스트성을 갖게 하는 요인이다.³⁾ 즉, 텍스트 간에 공유하고 있는 텍스트의 구성 요소가 인터텍스트이다. 인터텍스트는 텍스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는 이를 이용하면 텍스트 간은 물론 텍스트 내부로의 인지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어려운 텍스트를 읽기 위해서는 관련 있는 쉬운 텍스트를 먼저 읽어야 한다. 그래서 인터텍스트를 마련하면 어려운 텍스트의 기표를 통과할 수 있게 되고 텍스트의 이해가 가능해진다. 독자가 인터텍스트를 활용하여 텍스트 기표를 드나들 수 있는 것은 기호의 이런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읽기는 텍스트를 이루는 기호를 보는 관점에 영향을 받는다. 기호의 구조와 작용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 소쉬르는 기호를 기표와 기의의 이중 구조로 보았다(Saussure, 1972/2006: 83-85). 라캉은 이 기호에서 기표가 기의를 억압하고 있으며 기표는 여러 가지 기의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김형효, 1999: 252-268). 데리다는 기호의 기표는 기의를 다 드러내지 못하고, 기표가 작용할 때마다 밀려나는 기의가 있다고 하였다(김형효, 1998: 207-209). 피스(Peirce)는 기호는 대상을 지시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 기호를 보고 지시 대상을 해석하여 해석체를 표상한다고 하였다(Witte, 1992: 277). 기호의 구조를 읽기에서의 기호작용으로 보면, 독자의 텍스트 읽기 활동은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기표 안으로 들어가 기의를 표상하는 활동이 필요하

2) 인터텍스트(intertext)는 두 개 이상의 텍스트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정 내용을 지시하는 말이다(김도남, 2015: 16).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상호텍스트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텍스트의 구성 요소이다. 독자가 이 인터텍스트를 표상과 해석의 도구로 사용할 때에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3) 텍스트의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논의는 김도남(2014: 97-122)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다. 그리고 기표 밖으로 나와 표상된 기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즉 독자는 기표를 기점으로 텍스트 안에서 기의를 파악하고, 텍스트 밖에서 파악한 기의들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여 의미를 규정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퍼스의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기호들은 특정 대상을 지시하고 있다(Witte, 1992: 277). 텍스트의 기호들이 지시하는 대상은 하나의 개념이기보다는 지시 대상의 속성이다.⁴⁾ 대상의 속성은 하나의 개념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상의 속성은 보는 사람에 따라, 보는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독자는 텍스트 속의 기호로 대상의 속성을 특정한 것으로 고정함으로써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대상의 속성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하나는 개별성이다. 즉 독자의 텍스트 이해 활동은 독자가 텍스트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주체적으로 의미를 규정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표현성이다. 인식된 대상의 속성은 인식자의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표현은 텍스트에 사용된 기표와는 다른 기표로 텍스트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⁵⁾

4) 퍼스(Peirce)는 기호 작용을 기호(S), 대상(O), 해석체(I)의 구조로 본다. 기호가 대상을 지시하고 기호를 본 사람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해석체를 표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대상이라고 생각해 떠올리는 해석체는 다양하다고 말한다(Witte, 1992: 280). 이를 들뢰즈의 '개념'과 '이념'을 설명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개념'은 기호가 지시하는 공통된 속성을 추출하여 언어로 정리한 것이고, '이념'은 대상의 공통된 속성으로 정리되지 않은 다양한 특성이다. 들뢰즈는 이념의 실체를 '다양체'라고 했다(박영욱, 2014:73-76). 이념이라는 용어는 기호의 작용 측면에서 기호의 지시 대상의 개별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논의에서는 어려운 '이념' 대신 '대상의 속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대상의 속성은 '기의'와 '개념'에 대립되는 말로 기표가 지시하는 대상의 다양체를 지시한다.

5) Witte(1992)가 퍼스(Peirce) 기호론에 의존하여 설명하는 퍼스의 무한 기호작용(peirce's unlimited semiosis)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기호를 보고 기호가 지시하는 대상을 해석하여 해석체를 표상한다. 표상된 해석체는 기호로 표현되고, 이 새 기호는 다른 대상을 지시하여 다른 해석체를 생성하게 한다.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된다. 또한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해석체는 새 텍스트를 생성하게 하고, 새 텍스트는 다른 내용을 지시하여 해석체를 생성을 반복하게 한다(Witte, 1992: 276-288).

기호의 구조로 볼 때,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자의 인식 활동이 텍스트의 기표 안쪽으로 들어가기와 밖으로 나오기를 해야 한다. 들어가는 독자가 기표를 통하여 텍스트의 내용 표상을 지향하는 활동이고, 나오기는 표상 내용에 대한 의미 해석을 지향하는 활동이다. 독자의 인식 활동이 텍스트의 기표 안쪽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올 때 어떤 인터텍스트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표상 내용과 해석 결과는 달라진다. 텍스트 내용 표상은 독자의 인식 활동이 텍스트로 들어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텍스트에 들어가서 일어나고, 의미 해석도 텍스트 밖에 나와서 텍스트와 거리를 두고 일어난다. 이들 표상과 해석을 위해 텍스트로 들어가기와 나오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표상과 해석이 텍스트의 기표를 가운데 두고 이루어지지만 서로 다른 지향성을 갖는 활동임을 의미한다.

이 논의에서는 텍스트의 기표를 넘나드는 독자의 인식 활동의 원리를 살펴본다. 텍스트 넘나들기가 기호의 구조적 조건과 텍스트의 상호텍스트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살펴보고, 텍스트의 기표를 넘나들며 읽는 독자의 인식 행위 특성을 알아본다. 이는 읽기가 기호의 구조와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표상과 해석으로 이루어짐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내부와 외부로 넘나들며 읽는 방식을 탐색해 본다. 구체적인 읽기의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인터텍스트를 활용하여 텍스트 내부와 외부 넘나들며 읽는 읽기의 설명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둔다.

II. 텍스트의 기호 작용 구조

텍스트는 기호 구조로 볼 때 기표와 기의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표면에 기표가 있고, 이면에 기의가 있다. 이 텍스트의 기호 구조에 독자가 참여하면 기호 작용이 일어나 독자는 표상과 해석의 인식활동을 한다. 독자는

텍스트 표면의 기표를 해독하여 텍스트 내부의 기의를 찾고, 찾은 기의를 마음속에 표상한다. 독자는 표상한 기의를 가지고 텍스트의 기표를 벗어나 기의들을 재조직하여 의미 해석을 한다. 읽기는 독자가 기표를 경계로 안에서 이루어지는 표상 활동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해석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독자의 텍스트 읽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호의 작용 구조를 살펴본다.

1. 텍스트의 기호 구조

텍스트는 외형적으로 다른 텍스트와 독립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관계적이다. 한 편의 글이나 책은 완결된 형태와 형식을 갖고 있다. 각 텍스트는 외면적으로 말 한마디, 시(이야기) 한 편, 책 한 권, 책 한 질 등의 단위를 가진다. 반면, 텍스트의 내용은 다른 텍스트와 연결되어 상호텍스트성을 이루고 있다.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와 특정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⁶⁾ 특정 구절이나 표현, 관점, 논리 구조, 탐구 방법 등을 공유한다. 이 상호텍스트성은 기호의 작용으로 일어난다. 텍스트의 기호가 작용하는 방식을 먼저 살펴본다.

1) 기표와 기의

독자는 필자의 음성을 대체하고 있는 기호를 읽는다. 독자는 텍스트를 읽을 때 기호의 기표를 해독함으로써 텍스트의 내용을 표상한다.⁷⁾ 소쉬르의

6) Spivey(1997/2004: 242-265)는 대학원생들의 논문을 분석하여 텍스트의 상호의존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확대하여 텍스트의 상호텍스트성을 밝혔다.

7) 내용을 표상한다는 것은 대상의 속성을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퍼스(peirce)의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의 기호들이 지시하고 있는 것을 독자가 마음속에 떠올린 것으로, 기호가 지시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을 해석하여 인식한 것이다. 독자가 표상한 것은 대상 그 자체이기보다는 대상의 특정한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 언급되는 라캉이나 데리다의 기표와 기의 관련 내용의 기의도 대상 그 자체가 아니고 분석되고 연합작용으로 이루어진 대상의 특정한 속성을 지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호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기표의 해독은 기의의 인식으로 바로 연결된다. 소쉬르는 청각영상을 기표라고 하고 있는 데 기호를 청각영상의 형태로 인식하면 기의는 자동으로 표상된다고 말한다(Saussure, 1972/2006: 83-85). 소쉬르는 기표와 기의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보기 때문에 독자의 기표 지각이 기의의 표상으로 연결된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이 기호를 라캉이나 데리다, 퍼스의 관점에서 보면, 기표와 기의는 붙어 있는 구조가 아니다. 관련성은 있지만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기표는 기의를 자동으로 표상시켜 주지 못한다. 그래서 독자는 텍스트를 읽을 때, 기호를 이루고 있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의지적으로 찾아 연결해 표상해야 한다. 텍스트의 기표와 기의 연결이 자의적 이중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기호의 자의적 이중 구조는 이들이 일시적으로나마 필연적 연결 관계를 형성해야만 의미 작용에 관여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텍스트의 기호가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표와 기의가 텍스트의 맥락 속에서 결합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다시 말해, 독자가 텍스트의 기호를 보고, 기표가 지시하는 기의를 떠올려 연결 지어야 의미 작용이 일어난다. 독자가 텍스트의 기호를 보고, 기표가 지시하는 기의를 떠올리는 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터텍스트이다. 인터텍스트는 여러 텍스트에서 기표와 기의가 유사한 결합 관계를 이루고 있는 언어 단위이다. 독자가 텍스트를 읽는 행위는 다른 텍스트에서 기표와 기의가 결합되어 의미 작용을 일으켰던 인터텍스트를 끌어와 연결시키는 활동이다. 독자가 이 인터텍스트를 활용함으로써 텍스트 내용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터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에서 사용되었던 기표와 기의의 결합 단위로 독자가 텍스트 읽을 때 활용해야만 한다. 이러한 기호의 인터텍스트의 특성을 라캉이나 데리다 등의 논의를 활용해 설명할 수 있다.

라캉은 기호를 꿈의 구조로 설명한다(김형호, 1999: 252-258). 우리가 꾸는 꿈의 기억이 기표라면 꿈을 꾸게 한 심리적 원인은 기의이다. 꿈의 기표는 꿈을 꾸게 한 심리적 원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변형을 시킨

다. 또한 여러 가지의 심리적 원인이 연결되어 한 가지 기표로 드러난다. 그래서 기억된 꿈인 기표는 심리적 원인인 기의와는 관련성은 있지만 다른 것이다. 즉, 기억된 꿈은 다양한 심리적 내용과 관계를 맺고 있다. 요컨대, 기표는 여러 가지 기의를 상대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기호의 기표와 기의는 결합될 수 없는 경계면을 갖는 두 층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기표는 기의를 억압하고 있다고 말한다(김형효, 1999: 85). 이 말은 기표를 통하여 기의가 쉽게 드러나지 않음을 지시하기도 하지만 기표와 관련된 기의를 의도적으로 찾아 연결해야 함을 의미한다. 라캉의 기호론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 표층의 기표는 심층의 기의를 억압하고 있다. 즉 표층의 기표는 심층의 심리 내용을 변형시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의는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독자가 텍스트의 기표를 해독할 때 관련된 여러 기의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함의한다. 이 관점에서 읽기를 보면, 독자는 표층의 기표를 해독하여 심층의 기의를 의도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데리다는 텍스트의 글자는 음성을 대신한다고 본다(박영옥, 2014: 53-61). 음성은 특정한 상황에서 발화되기에 지시 대상이 분명하다. 이 음성을 대신하는 글자는 발화 상황이 존재하지 않기에 지시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 글자는 음성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대리자는 주인을 대신하지만 주인이 아니다. 대리자는 주인을 모두 드러내지도 못하고, 때로는 주인을 쫓아내기도 한다. 대리자인 글자는 음성이 담고 있는 내용을 다 드러내지도 못할뿐 더러 가끔은 다른 내용을 갖기도 한다. 즉, 텍스트의 기표는 기의를 제대로 드러내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데리다는 이러한 기호의 작용을 디페랑스(différance)라는 말로 나타낸다. 디페랑스는 기표가 기의의 일부를 드러내지만 나머지 기의를 드러내지 못함을 의미한다. 나머지 기의가 드러나지 못하고 밀려나는 것이 디페랑스, 곧 차연이다. 요컨대, 기표는 기의를 일부분만 드러내고, 사용되는 곳에 따라 다른 기의를 드러낸다. 이 관점에서 읽기를 보면, 읽기는 독자가 기호를 해독하여 기표가 지시하는 일부의 내용을 떠올리

면서, 나머지 내용은 뒤로 미루어 두는 활동이다.

라캉과 데리다는 기표가 기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주목한다. 기표와 기의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두 층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표와 기의가 결합되는 지점에서만 의미를 드러낸다고 본다.⁸⁾ 기표와 기의가 결합지점을 갖지 못하면 기의는 드러나지 않는다. 독자가 텍스트를 읽을 때 기표와 기의의 결합지점이 만들어진 곳에서만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독자는 글을 읽을 때 낱말, 문장, 문단, 글이 지시하고 있는 대상과의 결합지점을 알고 있어야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결합지점을 모르면 기표는 인식할 수 있지만 기의는 파악할 수 없다. 극단의 예이지만 우리가 노자의 『도덕경』이나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읽어 보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책의 기호를 읽을 수는 있지만 그 내용 파악은 쉽지 않다. 독자가 이들 책을 읽으려면 책 속의 기호와 내용을 연결하는 결합지점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는 많은 글들이 마찬가지이다.

들뢰즈는 기표와 기의 차이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다양하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기표는 쓰일 때마다 다른 기의를 갖는다는 것이다(박영욱, 2014: 75-80). 사람이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드러내듯 기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 사람(기표)은 그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도둑을 잡은 용감한 청년이 언제나 용감할 수 없다. 용감하던 청년도 어떤 때는 도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호는 하나의 의미에 고착되지 않는다. 어느 곳에 놓여 있느냐가 즉, 무엇과 관계 맺고 있는가에 따라 지시하는 대상이 결정된다. 기표의 기의가 개념적 의미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표의 위치에 따라 다른 기의로 대체된다. 들뢰즈는 이런 의미의 작용을 다양체라고 말한다.⁹⁾ 하나의 텍스트도 마찬가지

8) 라캉이 말하는 ‘소파등의 고정 부분(le caption)’은 소기(기의)의 전부를 다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능기(기표)의 공통적 연쇄의 수준에서 소기를 잡는 지점을 뜻한다(김형효, 1999: 267).

9) 다양체란 (악보의) 도 음처럼 그 자체가 무수히 많은 소리를 잠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인 것이다. 텍스트는 단일한 개념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체적¹⁰⁾ 의미를 담고 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읽느냐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진다. 독자마다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글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기호를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 학자로 퍼스를 들 수 있다. 퍼스는 기호를 표상 작용과 관련지어 보면서, 기호(Sign) - 대상(Object) - 해석(Interpretation)의 구조로 본다(Witte, 1992: 269-283). 기호는 대상을 지시하고 있는데 기호 해독자는 기호를 보고 대상을 해석하여 마음속에 해석체를 표상한다는 것이다. 기호를 해석하여 해석체를 표상한다는 말은 기호 해독자는 기호가 지시하고 있는 대상을 그대로 표상하지 않음을 뜻한다. 즉 기호가 지시하는 대상과 기호 해독자가 표상한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읽기의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의 기호들이 담고 있는 내용과 독자가 표상한 내용은 다르다. 이러한 관점을 독자 중심 읽기에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같은 책을 읽어도 독자마다 다른 의미를 구성한다는 것이다.¹¹⁾

기호의 작용 구조면에서 읽기를 보면, 읽기는 독자가 기표를 통하여 억압되고 밀려다니는 기의를 고정시키는 활동이다. 기표와 기의는 분리되어 밀려다니기 때문에 독자는 이들을 고정할 수 있는 고정점을 찾아야 한다. 독자가 기표와 기의를 결합시켜 고정시켰을 때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잠재된 다양성은 그냥 저절로 표면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습관이나 개념의 틀로부터 벗어나 존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때 나타난다(박영옥, 2014: 72).

- 10) 다양체(multiplicity). 다양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다양성이란 외형상 다채로움을 의미한다. 하지만 들뢰즈의 다양체는 어떤 존재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무궁무진한 잠재성을 지닌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의 모습은 다양체로서의 그 사물이 겉으로 드러난 일부의 외양에 지나지 않는다. 간혹 사물에 대한 우리의 정보를 사물 자체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우리는 사물 자체가 지닌 잠재성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박영옥, 2014: 214).
- 11) 퍼스의 기호론에서 말하는 표상의 다양성은 기호가 지시하는 대상의 여러 측면 또는 다양한 속성을 의미하다. 반면, 인지적 관점에서는 독자의 표상의 다양성은 배경지식이나 관점에서 비롯된 차이를 의미한다.

다. 이때의 기표와 기의의 연결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연결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독자마다 또는 읽을 때마다 연결이 달라지면 파악하는 내용도 달라진다. 이를 들뢰즈 식으로 말하면, 읽기는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 다양체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2) 인터텍스트

텍스트는 내용적으로 상호텍스트적으로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하나의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와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Spivey, 1997/2004: 344-366). 텍스트는 기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기호는 다른 텍스트와 공유되어 있다. 기호의 공유는 내용의 공유를 가져온다. 내용의 공유라는 말은 기표와 관계된 기의를 같이 가지게 된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텍스트 간에 공유된 기표가 똑같은 기의를 가진다는 말은 아니다. 데리다가 말하듯이 기호는 사용된 곳마다 다른 의미를 가진다. 즉 기호는 쓰일 때마다 디페랑스의 속성을 내포한다.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와 관계를 이루고 있다. 하나의 텍스트는 여러 텍스트와 다양한 방식으로 얹혀 있으며 관계 속에 존재한다.¹²⁾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관계를 이루는 핵심이 되는 요소가 인터텍스트(intertext)이다. 인터텍스트는 텍스트들이 공유하고 있는 텍스트의 한 부분이다. 이 인터텍스트는 하나의 언어 단위이지만 그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인터텍스트는 텍스트들이 공유하는 기표나 기의로서 다양한 양태를 갖는다. 텍스트가 연결 관계를 이루게 하는 요소는 모두 인터텍스트이다. 이 인터텍스트를 공유한 텍스트들은 상호텍스트성을 갖게 된다.

텍스트 간의 기호 공유는 인터텍스트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다(김도남,

12) 텍스트의 여러 가지 관계는 네트워크의 형태로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텍스트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하여 형식적, 내용적, 기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Spivey, 1997/2004: 344-349).

2015: 15-17). 인터텍스트는 텍스트들이 공유한 내용 정보를 가리키는 말이다. 텍스트들이 공유하고 있지만 똑같지는 않은 관련 내용 정보의 단위가 인터텍스트이다(Spivey, 1997/2004: 324-330). 인터텍스트의 ‘인터(inter)’라는 말은 ‘사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공유’라는 말도 된다. 그리고 ‘텍스트(text)’는 기호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특정 내용을 담고 있는 단위이다. 즉, 인터텍스트는 이 텍스트와 저 텍스트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형식과 내용 정보이다. 텍스트는 인터텍스트를 가짐으로써 텍스트로 존재할 수 있다. 필자가 텍스트를 구성할 때 인터텍스트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 인터텍스트로 인해 텍스트들은 다른 텍스트와 형식면에서 또는 내용면에서 연결된 네트워크를 이룬다.

인터텍스트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띤다. 인터텍스트는 하나의 낱말 이상의 단위로 내용 정보를 포함한다. 낱말, 문장, 삽화, 아이디어, 방법, 주제, 필자, 관점, 사상 등 텍스트의 내용 연결에 사용되는 정보 단위는 무엇이든 인터텍스트가 될 수 있다. 독자도 텍스트와 관계하고 있을 때는 하나의 텍스트(언어 단위)이기에 인터텍스트가 된다. 텍스트는 외형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인터텍스트에 의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텍스트는 이 인터텍스트의 공유로 기호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즉 독자가 기표로부터 기의를 표상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텍스트는 여러 인터텍스트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인터텍스트는 필자의 정교한 계획에 의하여 선택되고 연결된다. 백희나(2014)의 유아 그림 동화 <달 샤베트>의 내용을 보면, 독창적으로 느껴진다.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름 밤 반장 할머니는 달이 녹아내린 달 물을 받아 달 셔벗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그런데 옥토끼가 찾아와 달이 없어 살 곳이 없다고 말한다. 할머니는 남은 달 물을 화분에 붓자 달맞이꽃이 피어난다. 그 때 달이 떠오르고 옥토끼가 달로 돌아간다. 할머니는 잠을 청한다.’ 이 내용을 보면, 녹아내리는 달 이야기, 여름날 밤의 일상, 옥토끼의 전설, 달맞이꽃의 전설 등의 인터텍스트들이 짜집기 되어 있다. 이들 인터텍스트의 연

결이 내용을 새롭게 느껴지게 한다. 인터텍스트들이 모여 형식적인 하나의 텍스트를 이루고 있고, 내용적으로는 여러 다른 텍스트들과 경계를 이루며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텍스트는 여러 다른 텍스트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달 샤페트>의 내용을 보면, 내용적으로 여러 텍스트와 인터텍스트를 공유하면서 맞닿아 있다. 녹아내리는 달은 ‘불개 전설’과, 여름밤의 밤나들이는 사람들의 일상 경험과, 옥토끼의 방문은 ‘옥토끼 전설’과, 달맞이꽃과 달은 ‘달맞이꽃 전설’과 맞닿아 있다. <달 샤페트>는 이들 텍스트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경계를 이룬다는 것은 기표나 기의들이 인터텍스트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두 텍스트에서 기능하는 형태가 다를음을 의미한다. 텍스트의 경계는 인터텍스트를 공유하는 부분이지만 텍스트의 조건에 따라 인터텍스트의 속성이 달라지는 경계면이 되는 곳을 말한다. <달 샤페트>가 인터텍스트로 인하여 여러 텍스트와 내용이 맞닿아 있지만 경계를 이루고 있는 텍스트들과 인터텍스트의 내용이 똑같지는 않다. 하나의 텍스트는 여러 가지의 인터텍스트를 포함하기 때문에 텍스트 경계는 인터텍스트 수만큼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중복 사용되는 인터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경계의 수는 줄어든다.

독자는 텍스트의 경계들 중에서 어떤 경계에 관심을 가지는가에 따라 표상 내용과 해석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독자는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인터텍스트로 경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에 따라 텍스트의 내용을 표상하게 된다. 독자가 <달 샤페트>를 읽을 때, 전체의 줄거리나 개별 사건의 표상과 의미는 인터텍스트에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첫 장면에서 한여름 밤에 녹아내리는 달은 차가운 달과 관련된다. 이 달과 인터텍스트를 공유하는 텍스트는 더운 여름날 녹을 수 있는 얼음 달이 있는 텍스트이다. 얼음 달을 공유하는 텍스트는 일식과 월식의 유래담인 ‘불개 전설’이 있다. 불개 전설은 해와 달이 사라졌다 나타나는 현상을 불개가 해와 달을 삼켰다 토해 놓기 때문이라고 알려준다. <달 샤페트>의 녹는 달을 불개 전설과 관련지으면 사라졌다 나타나는 달의 다른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달 물로 셔벗을 만들

어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옥토끼가 찾아오고, 달맞이꽃이 피고, 달이 떠올라 옥토끼가 달로 돌아가는 각 사건은 달의 재생 과정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한편 ‘이웃과 서벚을 나누어 먹기’나 ‘옥토끼 전설’, ‘달맞이꽃 전설’의 인터텍스트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사건들은 다른 점이 부각되면서 파악된다. 이는 텍스트의 내용이 어느 경계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내용 표상과 의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읽기는 독자가 끌어오는 외부 인터텍스트와 텍스트 속의 내부 인터텍스트 연결로 이루어진다. 독자는 텍스트를 읽는 동안 여러 외부 텍스트와 관련을 짓는다. 그래서 텍스트의 해석 의미는 텍스트 내부에 존재하지도 않고 외부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텍스트 내부에 의미가 존재한다면 다른 텍스트와 관계없이 완결된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관계없이 존재할 수는 없다. 한편, 텍스트의 외부에 의미가 존재한다면 하나의 텍스트는 독립된 형태를 갖출 수 없다. 외부의 텍스트는 텍스트 내부의 일부 인터텍스트를 공유할 뿐이지 텍스트 전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의미가 드러나는 지점은 텍스트와 텍스트들이 관계하고 있는 경계라고 할 수 있다.

3) 경계와 관문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경계를 이룬다는 말은 외형은 분리되어 있지만 내부는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땅과 바다의 경계, 나라 간의 경계, 땅 소유권의 경계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하나의 텍스트는 다양한 텍스트와의 경계를 이룬다. 필자와 경계를 이루고, 다른 텍스트와 경계를 이루고, 독자와 경계를 이룬다. 필자와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른 텍스트와 연결되어 있으며, 독자와 연결되어 있다. 텍스트는 경계들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텍스트는 나라 간의 경계와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 소통이 있다. 그러면서 서로 의존하고 있다. 텍스트의 경계는 소통이 존재하는 경계이다.

소통하는 경계에는 관문 또는 통로가 있다. 관문이나 통로는 전면적이 아니다. 관문은 부분적으로 특정한 곳에 위치한다. 관문은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닫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넓을 수도 좁을 수도 있다. 위치가 변하거나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다. 형식이나 방법이 복잡할 수도 있다. 일상생활에서 경계마다 있는 터미널, 마트, 병원 등의 관문 이용은 쉽지만 국가 간의 경계에 있는 공항, 항구 등의 관문 이용은 복잡하고 어렵다. 텍스트의 경계에도 관문이 있다. 독자는 텍스트의 내용을 표상하기 위해서는 이 관문을 이용해야 한다. 텍스트 경계의 관문이 익숙해 독자가 쉽게 지나들 수 있는 텍스트가 있는 반면, 낯설어 쉽지 않은 텍스트도 있다. 독자들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은 한번쯤 읽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독자가 처음 『순수이성비판』을 접하게 되면, 이 책이 이루고 있는 경계를 쉽게 넘어갈 수 없다. 기표에 연결된 기의를 떠올리기 어렵고, 기호들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즉 경계에서 텍스트로 들어가는 관문을 찾기 어렵고, 통로로 들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독자는 읽는 것을 그만두게 된다. 『순수이성비판』을 읽는 독자는 이 책의 경계에 있는 관문을 찾아서 지나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관문은 내부와 외부로 연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텍스트에서의 관문은 특정 기표이다. 텍스트에서 사용된 특정 기호는 다른 텍스트에서도 사용된 기호이다. <달 샤베트>의 ‘여름밤’, ‘녹는 달’, ‘정전’, ‘마을 가기(마을: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 ‘샤베트’, ‘옥토끼’, ‘달맞이꽃’ 등이 관문이 된다. 이들 기호는 독자가 <달 샤베트>를 읽을 때 경험이나 다른 텍스트와 연결을 짓게 한다. 이들 중 ‘여름밤’, ‘정전’, ‘셔벗’, ‘마을 가기’ 등은 일상적인 관문의 역할을 한다.¹³⁾ 한편 ‘녹는 달’, ‘옥토끼’ ‘달맞이꽃’ 등은 관련된 다른 텍스트와 연결을

13) 관문은 사람과 물자가 지나드는 곳이다. 관문은 간편하고 넓을수록 누구나 쉽게 지나들 수 있다. 까다롭고 좁을수록 아무나 지나들 수 없다. 생활 속에서 볼 때, 다른 곳과 연결되는 관문인 터미널이나 역은 공항에 비하여 간편하고 지나들기가 쉽다. 많은 사람들과 물건들이 터미널과 역을 통하여 이동한다. 반면 공항은 일부의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이용하게 된다. 터미널이나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

필요로 하는 관문이다. 이들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불개 전설’, ‘옥토끼의 전설’, ‘달맞이꽃의 전설’의 내용을 활용해야 한다. 이들 기표의 관문은 텍스트에 직접 드러나 있어서 독자가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텍스트 경계의 이차적인 관문은 특정 기의이다. 기의는 동일한 기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기표와는 관련 없는 경우도 있다. 관문의 역할을 하는 기의는 개념, 생각, 경험, 지식, 입장, 관점, 방법, 지향 등의 내용적 특성을 가진다. <달 사메트>의 여름밤 달의 녹아내림은 무더운 여름날의 월식과 관련되고, 이는 불개 전설과 연결된다. 또한 차가운 달의 녹음은 달의 상태의 변화를 예견하게 한다. 셔벗의 나눔은 이웃과 함께 하는 생활을 떠올리게 하고, 옥토끼의 등장은 옥토끼가 살아갈 달을 존재를 내포하고 있다. 달맞이꽃은 달이 새로 떠오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임을 함의하고, 녹아내린 달로 인해 생긴 문제를 해결할 단서가 된다. 읽기에서 기의가 텍스트의 관문이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예를 찾을 수 있다. 한 예로 소쉬르의 『일반언어학 강의』의 구조주의의 관점과 탐구 방식은 구조주의 관점에서 쓰인 언어학, 문화인류학, 종교학, 문학 비평 이론의 텍스트들을 읽는 관문이 된다. 인지심리학의 연구 방법과 내용은 과정 중심 읽기와 쓰기 관련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독자의 읽기는 텍스트 경계의 관문을 드나드는 소통의 과정이다. 독자는 텍스트를 읽는 동안 텍스트의 내용 표상을 위한 관문을 찾는다. 독자는 어떤 텍스트에서는 들어갈 관문 찾기를 실패하고 어떤 때는 성공한다. 독자가 일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있는 텍스트는 쉬운 텍스트이다. 반면 독자가 의식적으로 관문을 찾아야 하는 텍스트는 어려운 텍스트이다. 독자가 관문을 들어가는 이유는 텍스트의 내용을 표상하여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용 경험이 있으면 일상생활의 하나로 여긴다. 공항은 여러 번 이용하여도 할 때마다 부담감을 느끼고 낯선 일 중의 하나로 여기게 된다.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경계 면의 관문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일부 텍스트는 일상의 활동처럼 읽을 수 있다. 또 일부 텍스트는 읽는 부담을 많이 가지고도 읽을 수 없다.

독자의 텍스트 내용 표상은 읽고 읽는 텍스트의 절대적 기의는 아니다. 독자가 관문을 통과할 때 사용한 인터텍스트를 활용한 독자만의 표상이다. 독자가 어떤 인터텍스트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표상이 달라진다.

독자는 표상한 내용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의미 찾기는 텍스트에서 벗어나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독자가 텍스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관문을 빠져 나오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 <달 사베트>의 내용을 표상하는 활동이 관문을 들어가 하는 활동이라면, <달 사베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활동은 관문을 나와서 하는 활동이다. 독자가 텍스트를 벗어날 때 어떤 기표나 인터텍스트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찾는 의미는 달라진다. 할머니가 이웃을 도와주는 기표나 인터텍스트를 활용하면 독자가 해석한 의미는 ‘서로 돕는 생활’이 될 수 있다. 또는 달이 더위에 녹아내렸다가 달맞이꽃을 통하여 다시 떠오르는 인터텍스트를 사용하면 ‘자연의 순리를 따름’이 될 것이다. 할머니의 문제 해결 활동을 인터텍스트로 활용하면 ‘할머니의 지혜’가 될 수 있다.

독자의 텍스트 내용 표상과 의미 해석이 독자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인터텍스트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독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텍스트는 익숙한 인터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어서 이고, 어려운 텍스트는 텍스트와 공유된 인터텍스트를 끌어오기 어려워서 이다. 어려운 텍스트를 읽어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경계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인터텍스트가 필요하다. 독자는 관문 통과에 필요한 인터텍스트를 찾아야 한다.

텍스트의 경계 관문을 통과할 때 인터텍스트를 결정하는 주체는 다를 수 있다. 텍스트에 들어갈 때의 인터텍스트는 텍스트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낯선 텍스트의 경우 특히 그렇다.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고정되어 있어 독자가 활용할 인터텍스트는 제한을 받는다. 텍스트에 들어갈 때 독자는 텍스트의 관문을 통과할 조건에 맞는 인터텍스트를 활용해야 한다. 한편 텍스트 밖으로 나올 때는 독자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텍스트 밖으로 나오는 관문은 독자가 활용할 인터텍스트에 제한이 없다. 독자가 나오는 관

문을 선택할 수 있고, 관문에 맞는 인터텍스트를 활용하여 의미를 결정할 수 있다.

텍스트 중심의 읽기는 텍스트에 드나드는 관문 통과와 조건을 텍스트 내에 두었다. 그래서 독자가 텍스트를 드나들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요구하는 특정 인터텍스트를 갖추어야 했다. 이 경우 독자는 특정 조건의 관문으로만 통과해 텍스트의 특정 요소와만 소통을 하였다. 독자와 텍스트와의 소통은 일방적이고 단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독자 중심 읽기는 텍스트 관문 통과와 조건을 독자에 두었다. 독자가 특정한 인터텍스트로 관문을 통과할 수 있으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텍스트 주변에서 텍스트의 내용을 추측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의미 해석에서도 임의적인 인터텍스트의 사용을 용인해 준 측면이 있다. 그래서 개별 독자만의 의미 해석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텍스트의 경계를 넘나들기 위해서는 관문을 찾아야 하고, 관문 통과에 필요한 인터텍스트가 있어야 한다. 텍스트 중심 일방적 인터텍스트 요구나 독자 중심의 일방적 인터텍스트 사용은 텍스트 이해에 도달하기 어렵게 만든다. 텍스트의 이해는 기표와 기의를 고정하여 개별성과 특수성이 있는 의미 다양체의 한 면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독자의 기호 활용 구조

독자는 텍스트의 경계에 있는 관문을 드나들며 의미를 구성한다. 독자가 구성하는 의미는 어떤 관문으로 무엇을 가지고 넘나들며 어떤 활동을 했는가가 결정한다. 독자는 이 활동 과정에서 지식을 얻을 수도, 의미를 구성할 수도, 읽기 능력을 신장할 수도, 자아의 성장을 이룰 수도 있다. 독자가 글의 경계를 넘나들며 하는 일을 텍스트 중심이나 독자 중심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독자가 읽는 텍스트는 사실 정해진 관문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열쇠인 인터텍스트가 무엇인가가 관문을 결정한다. 또

한 인터텍스트가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는 연결 통로가 되고 텍스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독자는 인터텍스트를 활용하여 텍스트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에게 필요한 읽기 활동을 한다.

(가) 오늘도 엄마는 장수탕이다. 그래도 한 가지! 울지 않고 때를 밀면 엄마가 요구르트를 하나 사 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냉탕.

“덕지 너, 감기 걸려도 엄만 모른다!”

퐁덩퐁덩 발 딛고 헤엄치기, 어푸어푸 국가 대표 덕지 선수 금메달! 꼬르륵 으악, 배가 침몰한다. 그런데…… 어? 이상한 할머니가 타나왔다.

“겁먹지 마라, 애야. 나는 저기 산속에 사는 선녀란다. 날개옷을 잃어버렸는데 여태 여기서 지내고 있지?”

선녀 할머니는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 모른 척 끝까지 들어 드렸다.

우아, 이럴 수가! 할머니는 냉탕에서 노는 법을 정말 많이 알고 계셨다.

췌아아, 폭포수 아래서 버티기! 침병침병, 바가지 타고 물장구치기! 꼬로록꼬로록, 탕 속에서 숨 참기! 우와!

“그런데 애야, 저게 도대체 뭐냐? 아주 맛나게들 먹더구나.”

선녀 할머니가 요구르트를 가리키며 수줍게 물었다.

“요구르트요.”

“요……요구룽?”

“음……잠깐만요!”

나는 뜨거운 탕에 들어가 때를 불렀다. 숨이 막혔지만 꼭 참았다. 엄마가 때를 밀 때도 눈물이 나려는 것 꼭꼭 참았다. 드디어 엄마가 요구르트 하나를 사주셨다. 나는 할머니께 요구르트를 드렸다.

(〈장수탕 선녀님〉 일부, 백희나, 2012)

글 (가)는 백희나(2012)의 유아용 그림 동화인 〈장수탕 선녀님〉의 일부이다. 유아가 이 동화의 내용에 쉽게 접근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선

녀와 나무꾼>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하고, 어머니와의 대중목욕탕을 다녀본 경험이 필요하며, 목욕탕의 시공간적 배경 변화를 알아야 한다. 독자가 <장수탕 선녀님>의 내용을 표상하기 위해서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서 날개옷을 잃어버린 선녀에 대한 인터텍스트와 목욕탕의 시공간 관련 인터텍스트, 목욕탕 경험의 인터텍스트를 연결 지어야 한다. 독자가 <장수탕 선녀님>의 의미를 해석해 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인터텍스트를 활용해야 한다. 어린 독자라면 <달 사베트>의 반장할머니 인터텍스트와 연결하여 ‘서로 도움’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 <홍부전>의 홍부 인터텍스트와 연결시켜 ‘선행의 가치’를 해석할 수도 있다. 성인 독자라면 텍스트 구성 관련 인터텍스트로 텍스트 구성 방법의 독창성이나 아동발달 관련 인터텍스트로 유아의 주체적 성장의 의미를 해석해 낼 수도 있다. 독자의 읽기 활동과 관련된 기호 활용의 요인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유와 차용

독자가 텍스트를 읽고 내용을 표상했다는 것은 텍스트와 연결되는 인터텍스트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독자가 인터텍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배경지식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텍스트를 읽을 때 선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텍스트의 내용이 독자의 기억을 되살리기도 하고, 새로운 인터텍스트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물론 독자가 알고 있던 것일 수도 있다. 독자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텍스트의 내용을 인식하고 표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인터텍스트의 작용 때문이다. 독자가 텍스트 내용을 인식할 때의 인터텍스트 작용은 공유와 차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터텍스트의 공유로 독자는 표상에 성공할 수 있다. 공유는 둘 이상의 대상이 같은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텍스트의 공유는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 그리고 독자가 공통의 인터텍스트를 가지는 것이다. 이 공유는 독자가 텍스트의 내용을 표상하는 데 본질적인 것이다. 먼저 텍스트의 구성의 속성을 보면, 텍스트는 다양한 인터텍스트들이 짜집기 되어 있다.

글 (가) 〈장수탕 선녀님〉을 보면, 현대의 중소도시에 사는 아이의 목욕탕 경험과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의 인터텍스트가 연결되어 있다. 유아 독자는 이 동화를 읽으면서 이들 인터텍스트를 공유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텍스트 내용을 파악한 독자는 이들 인터텍스트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자가 인터텍스트를 공유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의 표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예를 들어, 대중목욕탕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목욕탕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표상이 잘 일어나지 않고, 선녀에 대한 인터텍스트의 공유가 없으면 목욕탕에서 선녀를 만나서 벌어지는 일들을 표상하기 어렵다. 텍스트의 기호들이 지시하는 기의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표상할 수도 있다. 독자가 텍스트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표상하기 위해서는 인터텍스트들의 공유가 바탕이 된다.

독자가 공유하지 못한 인터텍스트를 포함한 텍스트의 경우에는 다른 텍스트에 있는 인터텍스트를 활용하여 텍스트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 다른 텍스트의 인터텍스트를 활용하는 활동을 차용이라 할 수 있다. 독자가 노자의 『도덕경』을 읽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독자의 경우, 『도덕경』과 관련된 인터텍스트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도덕경』을 읽어도 그 내용을 표상하거나 의미 해석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때 독자는 『도덕경』을 풀이해서 설명하고 있는 텍스트에서 인터텍스트를 차용해 연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도덕경』의 내용 표상이 가능해지고 의미 해석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독자가 텍스트 내용을 표상하고, 의미 해석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텍스트와 텍스트 내용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공유하거나 차용한 인터텍스트를 분명히 규명하여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텍스트의 속성과 각 텍스트에서의 차이도 밝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용 표상이나 의미 해석 활동은 인터텍스트의 결합지점 또는 경계 지점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독자는 텍스트 경계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활용한 인터텍스트와 연결될 수 있는 텍스트의 내용에 주목하게 된다. 그 결과 내용 표상과 의미 해석은 인터텍스트와 관련되어 일어난다. 이는 독자가 활용

하는 인터텍스트를 명확히 했을 때 표상과 해석을 잘 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2) 거리와 강도

독자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인터텍스트를 활용하여 표상과 해석 활동을 할 때 거리와 강도가 작용한다. 거리는 텍스트의 내용과 인터텍스트의 관계가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의 문제이다. 필자가 텍스트를 구성할 때도 인터텍스트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재해석하거나 부분적인 의미만 활용한 경우도 있다. 인터텍스트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에는 두 텍스트 간에 관련성이 높아져 거리가 가깝고 직접적이게 된다. 거리가 먼 경우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경우이다. 강도는 인터텍스트를 활용하는 방식과 관련된다. 인터텍스트를 텍스트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인터텍스트가 중요한 부분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텍스트 간에 관계 강도가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낮아진다.

독자의 인터텍스트의 활용에는 거리가 작용한다. 독자는 텍스트의 내용을 표상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인터텍스트를 활용하게 된다. 독자가 활용하는 인터텍스트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읽고 있는 텍스트의 내용과 유사한 것을 가져온 경우이다. 일차적으로 인터텍스트의 내용이 텍스트의 내용과 유사성이 높으면 거리가 가깝다. 낯선 텍스트의 인터텍스트를 가져 왔을 때는 거리가 멀어진다. 인터텍스트가 몇 단계의 텍스트를 거쳤는가에 따라 거리가 결정되기도 한다. 여러 단계의 텍스트를 거칠수록 거리가 멀어지고 간접성이 높아지게 된다. <달 샤페트>에서 성인 독자의 한여름 밤의 마을 가기는 일상과 관련된 인터텍스트로 내용과 거리가 가깝다. 그래서 텍스트의 내용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 반면, 차가운 달이 더 위에 녹아내리는 장면의 인터텍스트는 경험 속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텍스트에서 가져와야 한다. 차가운 달이 있는 불개 전설을 읽어 본 독자는 찬 달의 인터텍스트를 활용하여 녹아내리는 달을 표상할 수 있다. 이것은 한 단계를 거쳐 인터텍스트를 가져 온 것이다. 이런 인터텍스트를 끌어오지 못한 독

자는 이 장면이 낯설다. 그래서 달이 녹아내리는 장면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용광로의 쉴룩런 쉴룩물이 쏟아지는 영상으로 본 경험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인터텍스트의 거리가 먼 예이다. 텍스트의 내용을 표상하기 위해 어디에서 어떤 인터텍스트를 연결하느냐에 따라 표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인터텍스트의 활용 강도는 연결하는 힘의 크기를 의미한다. 텍스트와 일치성이 높고 분명하다고 여기면 연결하는 힘이 크고, 일치성이 낮고 분명하지 않다고 여기면 연결하는 힘이 작다. 텍스트의 내용과 인터텍스트의 연결 강도가 강하다고 인식할 경우에 독자는 표상에 편안함을 느낀다. <장수탕 선녀님>을 읽을 때 <선녀와 나무꾼>의 선녀 인터텍스트는 연결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독자의 표상에는 부담이 없다. 반면 연결 강도가 약할 경우에는 독자는 인식 활동에 의식을 집중하고 관련성을 따져보게 된다. <장수탕 선녀님>을 읽을 때 <달 샤페트>의 반장 할거머니 행동이나 <홍부전>의 홍부의 행동에 관련된 인터텍스트는 연결 강도가 중간 정도이다. 남을 돕는 착한 행동의 인터텍스트가 연결점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한편 <달 샤페트>와 <홍부전>의 이야기 구성의 방법이나 사건 전개를 따져 동일성을 찾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일에는 의지적 노력이 많이 들어야 한다. 연결 강도가 낮아 의도적으로 이들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도가 약한 연결은 의미 해석 활동을 유도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일상적인 인터텍스트의 강한 연결보다 약한 연결에서 의미 있는 다양한 활동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¹⁴⁾

3) 친밀과 소원

독자가 활용하는 인터텍스트는 친밀한 것과 소원한 것이 있다. 물론 친밀과 소원은 넓은 스펙트럼을 갖지만 그 양 극단에 친밀과 소원이 있다. 친밀은 읽는 텍스트와 인터텍스트의 관련성이 높고 익숙한 것이고, 소원은 관련성이 낮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친밀과 소원의 판단은 필자나 독자가 하

14) 강한 연결과 약한 연결의 특성은 Barabási(2002/2013: 73-94)를 참조할 수 있다.

지만 그 결과는 각자 다르다. 필자는 친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독자는 소원하다고 할 수 있다. 친밀과 소원은 각자가 인터텍스트에 얼마나 익숙해 있느냐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인터텍스트의 친밀함과 소원함은 텍스트의 내용 표상과 의미 해석 활동과 관련된다. 인터텍스트가 친밀하다는 것은 익숙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내용 표상에 영향을 준다. 소원하다는 것은 생소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관련성을 찾게 되면 의미 해석이 달라진다.

인터텍스트가 친밀하다는 것은 두 가지 상황에서 일어난다. 텍스트 간에 친밀함과 독자와 텍스트 간의 친밀함이다. 텍스트 간에 친밀함은 동일 화제나 필자의 의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연결 강도와 관련된다. 독자가 활용한 인터텍스트와 텍스트 간의 친밀함은 독자의 생활이나 독서 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두 가지 모두 읽기에 영향을 주지만 독자의 인터텍스트와 텍스트 간의 친밀함이 여기서는 관심의 대상이다. 친밀하다는 것은 서로 가깝지만 동일하지는 않음을 전제한다. 서로 관계성이 있고, 텍스트의 내용과 인터텍스트가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독자의 인터텍스트가 텍스트의 내용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부분에서는 쉽게 표상되고 어려움이 없다. 다른 텍스트에서 빌려온 인터텍스트라도 독자가 이해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친밀함이 높다. 이 때 독자는 텍스트의 내용 표상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대중목욕탕을 다녔고, <선녀와 나무꾼>을 읽은 독자는 <장수탕 선녀님>의 목욕탕에서 일어난 일과 선녀와 만난 사건의 인터텍스트에 친밀함을 느낀다. 그래서 독자는 이 텍스트를 읽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인터텍스트가 소원하다는 것은 독자가 활용한 인터텍스트가 텍스트 내용과의 관계성이 낮아 임의적인 연결 짓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텍스트의 내용과 인터텍스트가 공유하는 요소가 많지 않음을 뜻한다. 공유하는 부분이 없는데도 독자가 임의적으로 연결하여 관련성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 공유하는 부분이 적다는 것은 독자가 의도적으로 관계를 찾아 연결해야 함을 뜻한다.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연결이 아니라 독자가 임의적으로 연결점을 찾아 연결하는 것이다. 독자가 의도적으로 연결을

하는 것은 텍스트의 내용을 특정한 관점이나 이론으로 보는 활동을 포함한다. 이 경우 독자는 연결 관문을 내용의 특정한 부분에 두게 된다. 이때는 텍스트의 내용 관계성이 분명하지 않은 인터텍스트를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의미 또는 다양체적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예를 들어 <달 사베트>를 달에 원형적 상징이론의 인터텍스트와 연결시킬 수 있다. 상징이론에서 달은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다. 상징이론의 인터텍스트를 끌어와서 텍스트의 내용과 연결을 지으면 달의 녹아내림을 죽음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 후반부에서 보면 달은 달 물을 흡수한 달맞이꽃과 함께 다시 부활한다. 그렇게 되면 이 이야기는 달의 자연적 섭리를 표현한 내용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III. 인터텍스트를 활용한 표상과 해석

독자가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인식 활동이 텍스트 내부로 들어가 하는 활동과 밖으로 나와 하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 독자가 텍스트 내부로 들어가 하는 활동은 내용 표상이고, 밖으로 나와 하는 활동은 의미 해석이다.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내용 표상과 의미 해석 활동이 서로 호응해야 한다. 독자의 텍스트 내용 표상과 의미 해석 활동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다.

1. 텍스트의 내용 표상하기

독자가 텍스트를 읽고 내용을 표상하기 위해서는 인식 활동이 텍스트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 텍스트 내부로 들어간다는 것은 독자의 인식 활동이 인터텍스트를 활용하여 기표 경계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관문의 통과는 텍스트 내용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표상함과 연결된다. 독자가 어떤

인터텍스트로 어떤 경계의 관문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텍스트 내용의 표상이 달라진다. 독자가 활용한 인터텍스트에 따라 중요 정보와 주변 정보가 달라지고, 표상 정보의 조직 체계가 달라진다. 따라서 독자의 인식 활동이 텍스트 내부로 들어가는 일은 인터텍스트를 활용한 내용 표상과 표상 내용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 독자가 활용하는 인터텍스트에 따라 표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지금 말한 至善은 自性이 본래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진실한 자체로서 다만 하나의 광명뿐이요 안과 바깥도 없으며 옛과 지금도 없고 나와 남도 없으며 옳고 그름도 없는 것을 크게 깨달아 밝힘이니, 이른바 ‘독립하여 변동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한 점의 무엇도 붙을 수 없고 말끔히 소탕되어서 미세한 티끌도 없다. 만약 선으로 악을 쳐부수어 악이 제거되고 선이 남아 있으면 이것은 오히려 한 층이 막혀 있나니 이 하나 善자는 이 원래 客인 塵이고 본래의 주인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극한 자리이거나 그칠 만한 땅이 아니다.(今言至善은 大是 悟明自性本來無善無惡之眞體가 只是一段光明이요 無內無外며 無古無今이며 無人無我이며 無是無非니 所謂獨立而不改라 此中에 一點著不得이요 湯無纖塵이라 若以善으로 破惡하야 惡去善存하면 此猶隔一層이라 卽此一善字는 原是客塵이요 不是本主니 故不是至極可止之地라.)

(『大學綱目決疑』 일부, 감산, 미상/2002: 52-53)

글 (나)는 『대학강목결의』에서 유학 경전인 『대학(大學)』의 첫 구절인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중 ‘지선(至善)’에 대한 감산대사의 풀이다. 이 풀이를 보면 감산대사는 ‘지선’에 초점을 맞추어 불교의 용어인 ‘(무)자성(無自性)’¹⁵⁾을 인터텍스트로 이용하여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즉 지선이라는 용어를 관문으로 삼아 (무)자성의 개념을 연결하여 ‘대

15) 무자성(無自性)은 불교의 용어로 ‘스스로 그러한 성질(自性), 즉 사물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속성’이 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학』의 첫 구절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이는 지선을 유교적 개념으로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적 개념으로 표상하게 한다. 여기서 지선은 무자성이라는 인터텍스트로 인하여 원래 기의와는 다른 새로운 대상의 속성으로 표상된다.

독자의 표상 활동은 텍스트의 경계 넘기를 필요로 한다. 경계 넘기는 글(나)에서와 같이 텍스트의 주요 기표가 가진 기의의 속성을 풍부하고 분명하게 표상하는 것이다. 텍스트의 기호가 지시하고 있는 대상의 속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인식하는 것을 경계 넘기라 할 수 있다. 이 텍스트 경계 넘기는 인터텍스트를 활용한 의식적인 내용 표상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글(나)에서 감산대사는 의식적으로(무)자성을 활용하여 지선의 속성을 찾아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인터텍스트를 활용한 표상은 그 내용이 인터텍스트의 특성에 맞게 분명해지고, 체계적인 표상 내용이 되어 텍스트 이해에 관여하게 된다. 이는 기호가 지시하는 대상의 속성을 일관성 있으면서 체계적인 표상을 가능하게 한다.

독자는 의식적인 표상을 위해 인터텍스트를 점검해야 한다. 독자는 자신이 활용하고 있는 인터텍스트가 어디에서 온 것이고, 그 내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인터텍스트의 확인은 어떻게 텍스트의 내용을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다. 『대학강목결의』에서 감산대사는 지선(至善)을 유교적 개념인 ‘事理의 당연한 極(표준)’(성백효 역, 2004: 23)으로 보지 않고, ‘무자성’으로 해독하고 있다. 이는 감산대사가 유교적인 지선(至善)의 해석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감산대사의 관점에서 『대학』의 의미를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특정 인터텍스트를 사용한 것이다. 감산대사는 이를 위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인터텍스트인 무자성이 지선의 기의를 표상하는 데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이를 적용한 것이다. 텍스트의 내용 표상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독자가 활용할 인터텍스트의 점검과 확인은 당연한 일이다.

독자가 활용하는 인터텍스트에 따라 표상 내용이 달라진다. 글(나)를

보면, 유교 경전인 『대학』의 한 구절이 불교의 구도(求道) 방식을 인식하는 내용으로 표상되고 있다. 이는 독자가 활용하고 있는 인터텍스트 때문이다. 독자가 어떤 인터텍스트를 활용하는가가 표상하는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유교의 관점에서 지선을 읽는 독자는 ‘사리의 당연한 표준’으로 보기 때문에 지선의 의미는 감산대사의 표상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인터텍스트는 독자가 텍스트의 내용을 어떻게 표상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위의 글(나)는 극단적인 대립의 특성을 보이는 예시이지만 다른 텍스트들도 마찬가지로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글 (나)로 볼 때, 독자가 기호를 통하여 대상의 속성을 인식하는 것은 인터텍스트가 결정한다. 독자의 내용 표상에 의지나 배경지식이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인터텍스트가 표상의 결과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배경지식이 표상의 내용을 결정한다면 같은 텍스트를 읽고 다른 방식으로 내용을 표상하는 독자를 설명할 수 없다. 독자가 텍스트를 읽을 때 텍스트의 경계에 있는 관문을 통과할 때 사용하는 인터텍스트가 내용 표상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의 표상 내용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텍스트의 활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인터텍스트가 텍스트로 들어가는 관문의 열쇠이며 표상 내용을 결정하는 도구인 것이다.

2. 텍스트의 의미 해석하기

독자의 인식 활동이 텍스트 내부로 들어가 내용을 파악하였으면 외부로 나가야 한다. 텍스트 외부로 나가는 활동은 독자가 표상한 텍스트 내용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텍스트 경계 내부에서는 인터텍스트를 활용하여 텍스트에 충실한 내용 표상을 하는 것이라면, 텍스트 외부로 나올 때는 또 다른 인터텍스트와의 연결을 통하여 독자에게 충실한 의미를 찾는 것이다. 텍스트를 읽고 대상의 속성을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독자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야 한다. 텍스트 외부로 나가는 것은 이를 위한

활동이다.

(다) 〈홍부전〉의 주제는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된다. 선량한 자는 복을 받고 부도덕하고 탐욕스런 자는 죄를 받으니, 사람은 선량하고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고면(고정적인 줄거리 내용)에서 인과의 논리로 계속 역설되어 있는 표면적 주제이다. 그러나 비고면이 나타내는 바는 이에 다 포괄되지 않고, 표면적으로는 분명하지 않은, 이와는 아주 다른 또 하나의 주제를 지니고 있으니, 이를 이면적 주제라고 한다면, 천부의 대두로 가난해진 양반과 모든 기존 관념이 얼마나 심각한 곤경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면적 주제라 할 수 있다. (중략) 이 싸움에서 결국 우세한 쪽은 이면적 주제이다. 비고면의 풍부한 사례를 통해서 이미 선량하면 복 받는다는 교훈은 사실상 무력해진 것을, 홍부의 주린 염치가 헛된 것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골계의 관점이 지닌 표현의 강도에서도 이면적 주제가 더 큰 설득력을 지니고 결과적으로 우세하다.

(조동일, 1969: 314-315)

위 글 (다)는 조동일(1969)의 「홍부전의 양면성」이라는 논문의 결론 부분이다. 조동일은 〈홍부전〉 줄거리의 고정적인 부분(고면)과 변화하는 부분(비고면)을 비교 분석하여 고정적인 부분의 주제는 ‘권선징악’이고, 변화하는 부분의 주제는 ‘평민적 현실주의의 새로운 세계관의 반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텍스트 외부로 나와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의미 해석의 결과이다. 조동일은 〈홍부전〉의 경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이본의 차이를 인터텍스트로 활용하고 있다. 〈홍부전〉의 이본마다 달라지는 요인을 활용하여 텍스트 경계에 있는 관문을 벗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홍부전〉의 주제는 평민적 현실주의라고 제시한다.

독자의 인식 활동이 텍스트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텍스트가 필요하다. 글 (다)에서 보면, 〈홍부전〉의 내용을 권선징악의 인터텍스트로 표상하고, 같은 인터텍스트를 활용해 외부로 나오

게 되면 표면적인 주제도 권선징악이 됨을 보여준다. 반면, 텍스트 외부로 나오면서 다른 인터텍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면적인 주제가 드러남을 보여주고 있다. 독자가 들어가고 나올 때 같은 인터텍스트를 활용할 경우, 독자는 표상한 내용에 만족하게 된다. 글을 읽었다는 경험, 텍스트의 내용을 표상해 보았다는 경험밖에 가지지 못한다. 독자가 새로운 의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밖으로 나오면서 표상 내용을 종합하고 다른 인터텍스트와 연결을 지어야 한다. 글 (다)에서 보면, 필자는 의도적으로 이본들의 차이점이라는 인터텍스트를 활용하여 텍스트 외부에서 비판적으로 살피고 있다.

독자가 의미 해석을 위해서 텍스트 외부로 나갈 때는 들어갈 때와는 다른 관문을 이용해야 한다. 즉 경계를 새로 형성하고, 새로운 관문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경계는 텍스트와 차이가 나면서도 관련을 지을 수 있는 인터텍스트를 선택하면서 생긴다. 독자가 특정 인터텍스트가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 관계를 지으면 경계가 만들어진다. 이 경계에서 관문은 독자가 선택하는 인터텍스트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다. 표상한 텍스트의 내용을 어떤 인터텍스트와 연결하느냐, 즉 어떤 관문을 만드느냐가 의미 해석의 내용을 결정한다. 독서 현상에서 보면, 표상한 텍스트와 경계를 이룰 수 있는 다른 텍스트는 많다. 독자는 이들 중에서 인터텍스트를 선택하는 것이다.

텍스트 외부로 나가는 관문이 독자의 경험 한계 내에 있으면 의미 해석 활동은 제한된다. 독자는 표상된 내용을 인터텍스트와 연결 지을 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이 익숙한 관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홍부전>을 읽고 분석한 많은 독자들은 ‘평민적 현실주의’보다는 ‘권선징악’에 초점을 맞추었다. 독자에게 익숙한 인터텍스트를 사용한 결과이다. 독자가 가치 있는 의미 해석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즉, 다른 인터텍스트를 활용하여 텍스트의 관문을 벗어나 텍스트의 내용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인터텍스트를 선택하여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로써 새로운 텍스트의 관문을 찾고, 관문을 벗어나 텍스트 내용에 대한 의미 해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자는 텍스트의 관문을

만드는 활동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텍스트가 다른 것과의 관계 맺음으로 인해, 들뢰즈가 말하는, 다양체적 의미를 실현하게 한다. 즉 낯선 텍스트와의 경계를 만들고, 이에서 새로운 인터텍스트를 활용하여 의미 찾기 활동을 해 보아야 한다. 텍스트의 의미 해석하기 활동은 텍스트 내용에 대한 독자의 가치 부여 활동이다. 텍스트는 의미의 다양체를 품고 있는 대상이다. 독자가 어떻게 텍스트 외부로 벗어나는가에 따라 의미 찾기의 결과는 달라진다. 이는 읽는 텍스트가 달라지기보다는 독자의 텍스트 내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좀 더 확대하면, 인터텍스트를 활용하여 텍스트로부터 독자의 생각을 만들고 가치를 찾아내는 활동이다. 또한 텍스트 내용에 대하여 독자가 갖게 된 생각에 대한 근거와 출처를 밝히는 일이다.

3. 인터텍스트 활용한 읽기 단계

읽기는 독자의 의식이 텍스트의 기표 경계를 넘어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루어진다. 독자가 텍스트의 경계 넘어 안으로 들어갈 때 인터텍스트를 활용하고, 또 경계 밖으로 나올 때 인터텍스트를 활용한다. 독자가 경계를 넘나들며 사용하는 인터텍스트는 같지 않다. 같을 수 있지만 같지 않아야 의미 있는 읽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독자는 텍스트의 내부와 외부를 넘나들기 위해서 경계의 관문을 통과한다. 경계의 관문은 텍스트의 내부를 알려주는 길잡이이고, 텍스트의 외부에서 새로운 길을 찾게 하는 이정표이다. 독자가 어떤 인터텍스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표상하고 초점화하는 내용이 달라진다. 또한 표상한 내용을 외부의 무엇과 연결 짓는가에 따라 의미와 가치는 달라진다. 독자는 인터텍스트를 활용하여 텍스트의 경계를 넘나들며 표상하고, 의미를 찾는 활동을 한다. 독자의 경계를 넘나드는 활동을 정리하면 네 단계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계는 경계 찾아내기이다. 경계 찾아내기는 텍스트 구성과 텍스트 이해에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는 인터텍스트의 기호를 찾는 것이다. 텍스

트의 경계는 인터텍스트를 중심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독자가 인터텍스트를 활용하여 텍스트의 내용의 경계를 확인하여, 경계의 안과 밖을 구분할 때 표상한 내용이 분명해진다. 경계를 찾아내는 것은 텍스트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텍스트를 밝히는 것이고, 그 텍스트에서 어떤 인터텍스트가 활용되었는지 알아보는 활동이다. 익숙하지 않은 내용의 텍스트나 처음 읽는 내용의 텍스트는 관련 텍스트를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텍스트 내용 표상이 어려울 수 있다. 독자는 자신의 경험과 읽기 활동을 확인하고, 관련된 다른 텍스트를 점검하여 텍스트의 경계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경계 찾기는 텍스트를 읽는 중이나 읽고 난 후에도 일어날 수 있다. 경계가 지어진 표상 내용은 분명하게 인식되고, 확인된다. 독자의 의식이 표상 내용에 초점을 두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가 표상된 내용에 의식적인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계속하여 표상 활동을 진행하면 어떤 표상 내용에도 가중치를 둘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텍스트를 읽기만 한 것이지 표상 내용의 기억도 내용의 해석도 할 수 없다. 독자가 텍스트를 읽고 표상 내용에 의식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인터텍스트의 경계를 찾아내어 확인하는 것이다. 경계의 확인은 읽는 목적을 확인하고, 관계있는 인터텍스트가 무엇이고, 연결 대상과 연결지점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들이 확인되면 표상 내용은 분명해 질 수 있다.

둘째 단계는 경계 넘어가기이다. 경계 넘어가기의 인터텍스트를 활용하여 기표의 관문을 통과하여 텍스트의 내용을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표상하는 활동이다. 경계 넘어가기의 세 가지 세부 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인터텍스트를 확인하는 일이다. <달 사베트>에서 녹는 달과 불개 이야기의 차가운 달의 관계나, 『대학강목결의』의 지선과 무자성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이다. 둘째는 텍스트의 내용을 표상하는 일이다. 텍스트 내용 표상은 인터텍스트를 중심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연결하여 정보 조직 체계를 이루는 일이다. <달 사베트>의 첫 장면의 내용을, '얼음으로 된 달이 여름의 더위에 녹아내리자 반장 할머니가 달 물을 받아 냉장고에 넣어 얼려 셔벗을 만들어 이

웃과 나누어 먹었다'로 체계적으로 표상한다. 셋째는 표상 내용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이다. 표상한 정보를 떠올려보고, 인터텍스트와의 차이점 점검하고, 표상한 전체의 내용을 확인한다. 『대학강목결의』의 '지선'의 내용이 안과 밖, 나와 너, 옳고 그름의 구분이 없고 그 자체로 완전하여 변동이 없는 것을 떠올려 보고,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은 순수한 그 자체의 의미임을 확인한다. 독자는 텍스트 전체를 읽는 동안 장면이 바뀌어나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마다 이 과정을 반복한다. 경계를 넘어간다는 말은 인터텍스트로 통과한 관문을 중심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한다는 뜻이다. 이는 텍스트 내용의 표상이 관문과 인터텍스트에 의하여 달라짐을 말한다. 경계 넘어가기에서 독자가 끌어온 인터텍스트와 텍스트의 인터텍스트가 짝이 잘 맞으면 독자는 표상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표상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독자는 내용 표상을 위하여 필요한 인터텍스트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단계는 경계 넘어오기이다. 경계 넘어오기는 독자가 표상한 내용을 새로운 인터텍스트를 찾아 연결하면서 텍스트의 기표를 벗어나는 활동이다. 경계를 넘어 벗어나는 활동은 표상한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의미 찾기 과정이고, 표상한 텍스트 내용들을 재조직화 하는 과정이다. 독자는 한 편의 텍스트를 읽는 동안 관련된 인터텍스트를 활용하면서 몇 가지 내용을 표상하게 된다. <장수탕 선녀님>을 읽은 독자는 목욕탕에 감, 냉탕에서 선녀와 놀이함, 때를 씻고 요구르트를 얻음, 선녀에게 요구르트를 줌, 선녀의 도움으로 감기가 나음 등의 이야기 내용을 표상한다. 이 표상 내용들은 시간의 순서대로 표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자는 이 표상 내용에서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텍스트의 경계를 벗어나서 표상 정보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때 독자는 새로운 인터텍스트가 요구된다.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이 착한 일을 하여 좋은 일이 생겼다는 인터텍스트를 연결할 수 있다. 그러면 <장수탕 선녀님>을 읽고 표상한 내용은 착한 일을 한 내용과 좋은 결과가 부각되어 표상 내용이 재정리 된다. 텍스트 넘어오기는 새로운 인터텍스트를 활용하여 표상한 내용과 관계를 지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독자는

들어갈 때와는 다른 인터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경계를 이루는 텍스트를 바꾸는 것이고, 새로운 관문으로 나가는 것이다. 새로운 인터텍스트는 표상한 내용에 새로운 질서를 지우고 텍스트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끌어오는 역할을 한다. 독자는 이 새로운 인터텍스트를 활용하여 텍스트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 텍스트의 경계를 넘는 일은 독자의 몫이다. 독자가 의지를 가지고 경계를 넘게 될 때, 독자는 텍스트에서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넷째 단계는 경계 벗어나기이다. 경계 벗어나기는 텍스트의 기표 경계에서 떨어져 독자의 의미 해석을 정리하고, 해석한 의미를 독자의 기표로 표현하는 일이다. 이는 표상한 내용에 대한 해석을 통한 의미 찾기와 자기 생각 만들기 활동이다. 독자는 읽은 텍스트와 거리를 두고 자기의 생각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단절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텍스트를 읽고 표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인터텍스트에서 비롯된 의미를 구체화하고 자신의 생각 내용을 정리하여 표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장수탕 선녀님>에 대한 표상 내용을 나무꾼의 착한 일은 좋은 결과를 준다는 인터텍스트와 연결함으로 ‘남을 돕는 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생각은 <장수탕 선녀님>의 내용을 바탕으로 남을 돕는 삶의 이치와 남을 돕는 일에 대한 독자의 생각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독자의 생각 내용이 독자의 기표로 표현되어야 한다. 벗어나기는 텍스트 간의 경계 지점에서 텍스트 내용을 다시 떠올리면서 자신이 얻은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얻은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무얼 더 해야 할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다. 읽기는 만족감보다는 부족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얻은 것을 확인하는 것만큼 더 생각할 것의 점검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것은 텍스트에서 다시 확인하고, 인터텍스트를 다시 연결하여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자가 얻은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벗어나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IV. 결론

독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한다. 텍스트에 온전히 몰입하여 읽기도 하고, 텍스트를 제멋대로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어느 읽기가 절대적으로 타당하고 옳은 것은 없다. 독자마다 필요에 따라, 읽는 상황에 따라, 텍스트에 따라 읽기를 달리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관심을 갖는 읽기는 기호의 구조에서 비롯된 읽기의 특성이다. 기호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나 기호, 지시 대상, 해석체의 관계로 설명된다. 독자의 읽기는 텍스트 표면에 기표를 보고, 텍스트 이면의 기의라고 여기는 것을 마음속에 표상하여 떠올리는 활동과 표상한 내용에서 의미를 해석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 활동은 텍스트 편에서 내용을 표상하는 활동과 독자 편에서 의미를 해석하는 활동을 전제한다. 이 논의에서는 기호 구조와 인터텍스트를 중심으로 표상과 해석 활동 구분하여 검토해 보았다.

읽기에서 인터텍스트라는 말은 텍스트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음을 함의한다. 또한 텍스트들이 서로 분리되어 경계를 이루고 있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단서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한다. 그래서 읽기는 인터텍스트를 활용해야 하고, 텍스트 간의 경계를 넘어 들어가고 다시 되돌아 나오는 활동이 필요함을 내포한다. 이 논의에서는 독자가 넘나들어야 하는 텍스트 간의 경계에 있는 관문이 있다고 보았다. 이 관문을 드나들 때 독자는 인터텍스트를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텍스트는 다른 여러 텍스트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텍스트의 경계는 표면적으로 단절의 벽면을 공유하면서 이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텍스트의 경계는 기호를 단절의 벽면으로 삼고 인터텍스트가 이면을 연결하는 구조다. 그래서 독자가 텍스트의 경계를 넘기 위해서는 인터텍스트를 활용해야 한다. 인터텍스트는 텍스트와 독자, 또는 텍스트와 텍스트가 공유하고 있는 기표이거나 기의이다. 이 인터텍스트는 텍스트의 기표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열쇠이다. 인터텍스트는 경계를 이루고 있는 텍스트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경계에 있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읽기를 텍스트의 내용 표상과 의미 해석으로 볼 때, 독자는 내용 표상을 위하여 기표의 경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의미 해석을 위하여 밖으로 나와야 한다. 텍스트의 경계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독자는 텍스트를 이해하게 된다.

읽기 교육은 읽기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인터텍스트를 활용한 텍스트의 내부와 외부 넘나들며 읽기는 읽기 교육을 전제한 읽기 현상을 검토해 본 것이다. 텍스트 경계를 넘나들며 읽는다는 관점은 논의할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논의에서는 읽기를 기호학의 관점에서 텍스트의 기호 경계를 넘나드는 활동으로 보고, 읽기에 대한 인식과 설명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앞으로 인터텍스트를 활용한 텍스트 넘나들며 읽기는 이 논리에 따른 실제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2017. 11. 20. 투고되었으며, 2017. 11. 21. 심사가 시작되어 2017. 12. 1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김산(2002), 『대학강목결의』, 원조각성 역, 현음사(원서출판 미상).
- 김도남(2014),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 박이정.
- 김도남(2015), 「읽기 활동의 복잡계 네트워크 특성 고찰」, 『새국어교육』 104, 7-38, 한국국어교육학회.
- 김형효(1998), 『데리다의 해체 철학』, 민음사.
- 김형효(1999), 『구조주의의 사유체계와 사상』, 인간사랑.
- 박영옥(2014), 『데리다 & 들뢰즈: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에서』, 김영사.
- 백희나(2012), 『장수탕 선녀님』, 책읽는곰.
- 백희나(2014), 『달 사베트』, 책읽는곰.
- 성백효 역주(2004), 『대학 · 중용 · 집주』, 전통문화연구회(원서출판 미상).
- 조동일(1969), 「홍부전의 양면성」, 『홍부전 연구』, 인권환 편(1991), 집문당.
- Barabási, A. L. (2013), 『링크』, 강병남 · 김기훈 역, 동아시아(원서출판 2002).
- Saussure, F. (1997), 『일반언어학 강의』, 최승언 역, 민음사(원서출판 1972).
- Scholes, R. (1995), 『문학이론과 문학교육』, 김상옥 역, 하우(원서출판 1985).
- Spivey, N. (2004), 『구성주의와 읽기 쓰기』, 신현제 · 박태호 · 이주섭 외 역, 박이정(원서출판 1997).
- Witte, S. P. (1992), "Context, text, intertext : towards a constructivist semiotic of writing", *Written Communication* 9(2), 237-308.

인터텍스트를 활용한 읽기 과정 고찰

김도남

이 논문은 기호학적 관점에서 독자의 읽기 과정을 살펴보았다. 독자가 텍스트의 내용을 표상하고, 표상한 내용에서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 인터텍스트를 활용한다고 보았다. 이는 텍스트가 인터텍스트의 공유로 상호텍스트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독자가 텍스트를 읽을 때 이 인터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음에 착안한 것이다. 독자는 텍스트를 읽을 때 인식 활동은 기표를 경계로 안으로 들어가 내용을 표상하고, 밖으로 나와 표상한 내용에 대한 의미를 해석한다. 독자는 텍스트 기표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인터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인터텍스트를 활용한 독자의 표상과 해석 활동은 텍스트의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텍스트는 기표와 기의의 구조를 가진다. 독자가 기표를 해독하여 기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연결 짓는 기제가 필요하다. 기표와 기의를 연결 지어 텍스트의 내용 표상하고, 표상한 내용의 의미 해석을 돕는 것이 인터텍스트이다. 독자는 텍스트의 기표 경계를 넘어 들어갈 때의 활용하는 인터텍스트와 밖으로 나올 때 활용하는 인터텍스트는 다른 것을 활용한 다. 이것은 표상과 해석이 다른 의식의 내용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읽기 교육은 읽기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인터텍스트를 활용한 읽기는 독자의 표상과 해석을 설명하는 하나의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인터텍스트를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 단서로 본다. 이 논의에서는 인터텍스트를 활용한 읽기의 구체적이고 충분한 실증적 논의를 하지 못했다. 인터텍스트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인터텍스트

를 활용한 독자의 읽기 활동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들 연구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적 접근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읽기 교육, 읽기 방법, 텍스트 이해, 인터텍스트, 텍스트 경계

ABSTRACT

A Study of text reading process using intertext

Kim Dona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method of reading the inside, the outside and across the text. In this discussion, we see that reading is done across the boundary of the text. Text is encompassed by other texts on the outer surface symbols, but it is linked in content. The reader must go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text to read. So the reader has to understand the content of the text.

The reader crosses the boundaries of text and performs the representation and interpretation activities. Reading into the boundaries of the text by the reader is oriented toward representation, and reading out of the text is oriented toward interpretation. Cross reading uses intertext which is used to represent and interpret the contents. To this end, readers should use different intertexts when they begin and finish reading text. they should find and use appropriate intertexts to cross the text, which will allow them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text.

Reading education depends on how you view the reading phenomenon. In this study, we considered how to read texts while thinking about the direction of reading education. The concept of reading across text boundaries is not well established.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method of reading. In addition, an analysis of the actual reading activities of the readers and identification of their specific reading strategies is also required. Based on this, the reading educator should prepare the reading method and the reading instruction method.

KEYWORDS Reading Instruction, Reading Method, Text Understanding, Intertext, Text Boundary